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7

▶ 38회 예고
우데나왕은 아반띠국 짠다빳조따왕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힌다. 짠다빳조따왕은 우데나왕에게 코끼리를 부리는 주문을 배우려고 한다. 우데나왕은 조건으로 삼배를 요구한다. 짠다빳조따왕은 체통 때문에 딸을 내세운다.



깟짜나, 짠다빳조따왕을 교화시키다

건기인데도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다가 그쳤다. 특사단장 라다굽따가 아쇼까에게 면담을 요청한 날이었다. 웃자인 성민들은 비를 보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비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왕궁 접견실 베란다에 서 있던 아쇼까도 미소를 지었다. 궁중정원의 나뭇잎들이 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은 듯 번들거렸다.

라다굽따가 수행원 없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아쇼까는 접견실 문을 열고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어린 왕자시절에 한때 스승이었으므로 아쇼까는 라다굽따에게 예를 갖추었다.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소?"

"부왕님께서 배려해주시니 특사일행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쇼까는 날마다 특사일행을 위해 귀족식단에 다 염소 3마리와 잉어 50마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잠자리는 시프라강 언덕에 있는 아쇼까의 별궁을 주어 특사일행이 휴식을 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대왕님께 정식으로 지시받은 일은 아닙니다만."

"대왕님의 마음을 헤아리어 보좌하는 것도 특사의 임무겠지요. 어서 말해 보시오."

라다굽따는 짜파티를 마시려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어리신 왕자님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왕자님들에게 우주와 다양한 세계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빠딸리뿌뜨라 왕궁에는 브라흐마 제관이나 자이나교, 아지비까 구루 등은 많은데 불교 사문이 아직 없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불교 사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웃자인에 훌륭한 사문이 있다면 모셔 가고 싶습니다."

아쇼까는 바로 라다굽따의 말을 이해했다.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아쇼까도 어린 왕자시절에 목갈리뿟다띳사라는 불교 사문에게 배운 적이 있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왕자들이 여러 종교를 알아서 다양한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갖기를 원했다.

"산치동산 절에 담마팔이라는 사문이 있소. 그는 전생과 현생, 내생의 일까지 볼 줄 아는 사문이라오. 담마팔 사문이라면 어린 왕자들을 잘 가르칠 것이오."

"부왕이시여, 담마팔 사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거리이니 내가 초대해서 사문의 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소."

아쇼까는 즉시 호위대장을 불러 담마팔 사문을 데려오도록 지시했다. 라다굽따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다소 놀랐다. 아쇼까의 추진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즉석에서 지시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라다굽따가 접견실을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또 다시 한두 방울 떨어졌다. 라다굽따는 흐린 하늘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건기에 내리는 비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말이 생각나서였다.

이틀 후.

호위대장은 담마팔 사문을 데리고 웃자인성 남문으로 들어왔다. 담마팔이 입궁했다는 보고를 받은 아쇼까는 라다굽따를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가 담마팔을 무슨 말로 시험해 볼지 몹시 궁금했다. 자신은 산치 동산 절에서 담마팔 사문에게 데비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다굽따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었다.

호위대장은 담마팔을 접견실까지만 안내를 하고 돌아갔다. 라다굽따도 곧 접견실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비대장이 접견실 정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서로 목례를 한 뒤 들어갔다. 바로 그때 아쇼까가 맞은편 작은 문을 통해서 나타났다. 작은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기둥 같은 것이 아쇼까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아쇼까의 또 다른 모습에 움찔했다. 그러나 아쇼까는 두 사람 모두 구면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맞이했다.

"사문이시여, 이 분은 대왕님의 명으로 웃자인에 온 라다굽따 제관입니다. 라다굽따 제관께서 사문을 만나보고 싶다 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오. 대왕님의 특사이니 대왕님의 질문으로 알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기 바라오."

"부왕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반을 든 늙은 궁녀와 앳된 궁녀들이 들어와 아쇼까 앞에는 황금주전자와 금잔을, 라다굽따와 담마팔 앞에는 은주전자와 은잔을 놓고 갔다. 주전자에는 포도주가 아닌 코코넛 음료가 들어 있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담마팔 사문을 위한 배려였다. 궁녀들은 금잔과 은잔에 코코넛음료를 따른 뒤 접견실을 나갔다. 아쇼까가 먼저 담마팔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물었다.

"대왕님께서 어린 왕자들의 스승을 찾고 계시오. 초대한다면 빠딸리뿌뜨라로 가겠소?"

"대왕님께서는 왜 사문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왕자들에게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오. 나도 한때 불교 사문에게 배운 적이 있소."

아쇼까의 말에 담마팔 사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대왕님을 뵙고 싶습니다."

"왕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은 마우리아왕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오. 고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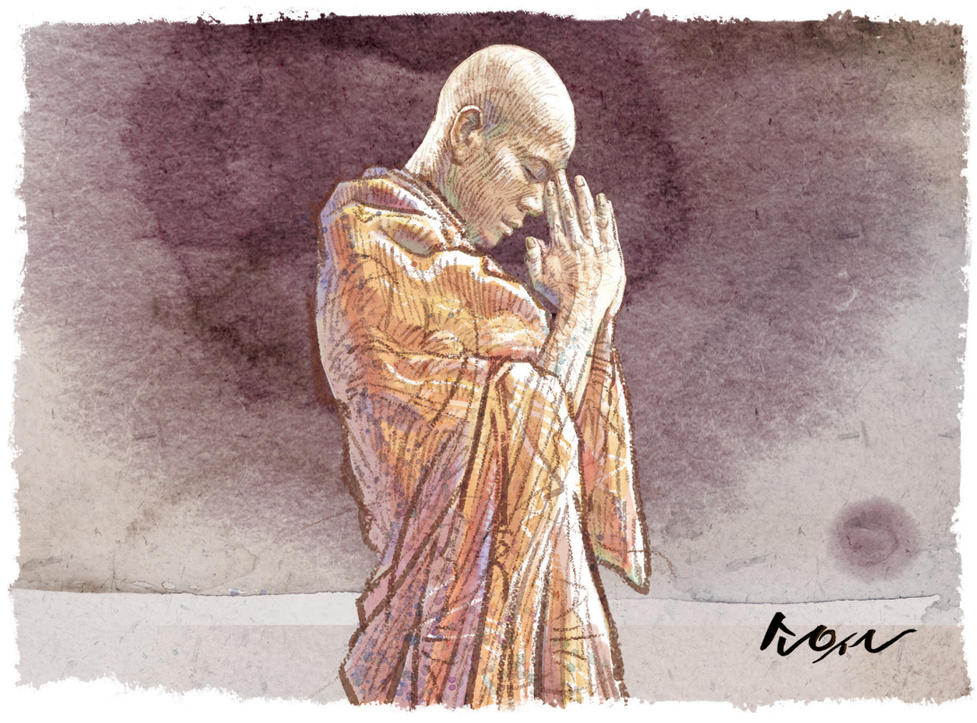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승은 산치 동산 절을 지은 베디샤데바님의 허락을 받아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데바 상인 수장은 나와 더 없이 호의적인 관계라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쇼까는 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라다굽따와 담마팔도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아쇼까의 건배사를 기다렸다. 아쇼까가 '영원한 마우리아왕조를 위하여.' 하고 선창하자 두 사람은 큰소리로 복창했다.

"영원한 마우리아왕조를 위하여!"

라다굽따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시여, 사문께서는 대왕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십니다."

"과찬입니다. 소승은 산치 동산의 작은 절 승려일 뿐입니다."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사문의 겸손은 아반띠국 사문들의 전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성군이 다스릴 때나 탁월한 사문이 출현하면 백성들은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법이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추듯 캄캄한 밤에 달이 뜨듯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아반띠국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 같소."

"한 사문이 훌륭한 왕으로 인도했습니다."

"훌륭한 왕이란 누구인가요?"

"붓다가 살아계실 때 아빈띠국을 다스렸던 짠다빳조따왕입니다. 왕은 웃자인 출신 깟짜나(가전연) 사문의 설법을 듣고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 짠다빳조따 왕과 깟짜나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담마팔 사문은 라다굽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쇼까도 가슴 한 구석에 성군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므로 귀를 기울였다. 담마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부드러운 바람 같았다.

"웃자인 태생의 깟짜나 사문은 브라흐민 신분의 궁중제관 아들이었지요."

깟짜나의 아버지는 베다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도 자신의 뒤를 이어 제관이 되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깟짜나도 성장하여 궁중제관이 되었다. 깟짜나 제관은 기도를 잘하여 왕의 참모 자리로 올라섰다. 어느 날 짠다빳쪼따왕이 붓다를 초청하고자 깟짜나 제관을 마가다국으로 보냈다. 일곱 명의 깟짜나 특사 일행은 꼬살라국 수도 스라바스티 제따와나(기원정사)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제따와나에 도착한 깟짜나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는 제자가 되어버렸다. 깟짜나만 아반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사문이 된 깟짜나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쉬운 논리로 설하고 다녔다. 소문을 들은 붓다가 칭찬했다.

"내가 간략하게 설하는 가르침에 대해 내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하는 사문들 가운데 마하 깟짜나가 으뜸이다."

"마하깟짜나는 현자이며, 큰 통찰지혜를 가진 수행자이다."

마침내 깟짜나 사문은 고국인 아반띠국을 찾았다. 짠다빳조따왕은 왕명을 어긴 깟짜나 사문을 뜻밖에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에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했다. 사실 온순했던 시절의 왕 이름은 빳조따였는데, 성격이 난폭해진 뒤부터 백성들에게 짠다빳조따로 불렸던 것이다.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을 본래의 모습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설법을 했다.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악행을 시킨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말에 의해 나쁜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남의 말에 의해 성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의 신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은 깟짜나 사문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에 무언가 회오리치는 듯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다. 깟짜나 사문은 설법을 계속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밝게 깨닫는 이는 더 이상 죽이고 빼앗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사 재물을 잃더라도 홀로 잘살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윽고 짠다빳조따왕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깟짜나 사문은 왕이 어떤 태도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하고는 설법을 마쳤다.

"대왕이여, 장님이 보듯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듯이 들으며, 이미 알고 있어도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약자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선행을 쌓을 수 있고, 복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를 끊듯 말했다.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에게 악행의 과보를 말했소. 스스로의 행위로 악인도 되고 성인도 된다고 말했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했소. 왕이 선행을 쌓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말했소. 이 모든 가르침은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왕자님들이 모두 배우고 익혀야 할 가르침들이오."

아쇼까도 한 마디 했다.

"담마팔 사문이여, 깟짜나 사문이 짠다빳조따왕을 교화시켰던 것처럼 왕자들을 가르쳐주시오."

"깟짜나 사문은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설법논리가 가장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마하깟짜나 사문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깟짜나 이름 앞에 마하를 붙여 부르는 것은 그가 사문들 중에서도 수승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담마팔 사문이라고 해서 마하담마팔이라고 불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베디샤데바가 아쇼까의 부름에 급히 궁궐로 들어왔다. 데바는 아쇼까로부터 담마팔을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절을 했다.

"부왕님이시여, 저의 절 사문을 대왕님께 보내시겠다니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데바는 역시 머리 회전이 빠른 상인 수장이었다. 데바가 영광스럽다고 한 것은 담마팔을 매개로 빈두사라왕과 왕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데바는 웃자인에서 마우리아국의 수도 빠딸리뿌뜨라로 확실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계속〉

32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2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년 전통 인쇄 기술력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